# 주 간 기 도 정 보

2025. 6. 1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킨 순국선열 희생 기억해야"

**교계 기관들, 제70회 현충일 맞아 성명 발표**

교계 기관들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고, 바른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70주년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며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자문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소리치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했다.

또한 "안보를 단지 군사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보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분단된 지 8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분단 상태는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고 있고, 이산가족 생존자도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도 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통일은 분명히 이뤄야 할 민족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공동의 기억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충일의 주목적은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이라며 "6.25전쟁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러한 6.25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은 교회의 존속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목회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우리나라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올바른 국가의 체제와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 적어도 현충일이 있는 6월에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시편 122:6-7)**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2:15-16)**

하나님, 현충일을 맞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기억하며 주께서 대한민국에 베푸신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애국심에 무뎌지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치우쳐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가는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양심과 생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의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는 거룩한 손 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함으로 이 땅을 붙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분단된 남북이 통일되고 열방을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 국제기독연대 "북한, 위험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성도 늘어"
**박해받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 하셨다"**

북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탈북민 주일룡 씨는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투옥, 고문,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백악관에서 주최한 종교 박해 피해자 초청 행사에 탈북민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주 씨와 그의 부모는 북한 청진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몰래 남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곤 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탈북의 희망을 안고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고모 가족은 가족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모두 처형당했다. 주 씨는 "수용소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탈북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극심한 잔혹함이다. 광범위한 강제 노동, 고문, 강간, 기아, 그리고 죽음이 수용소 생활의 일상적인 특징으로 여겨지며, 아이들 역시 부모와 같은 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서 계속 늘어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용감한 형제·자매들, 북한의 동료 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제자들을 세우고 있으며, 산과 언덕, 그리고 땅속에서 예배한다"고 덧붙였다.

동료 탈북자 김 씨는 수용소 중 한 곳에서 강간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국제기독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 생활 동안 신앙이 내게 버틸 힘을 줬다. '예수님, 지금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했다.

주 씨는 "박해받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굳건히 서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2025년에도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순위는 1993년 첫 발표 이후 23번째이며,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해(2022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본부 종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시편 67:1-2)**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가 8:6-7)**

하나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가장 악명높은 북한에 용감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사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잔혹한 고문과 위협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진리를 대적하며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는 위정자들의 계략이 무너져 멸시받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드사 십자가 복음이 증인의 고백으로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북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사 주의 도를 이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이방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지혜는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이라"

### 예배보다 학업·입시 우선인 10대…신앙 대물림 멀어진다

**사라진 예배당의 웃음소리,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엄마, 나 그냥 교회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 50대 초반의 윤정희(가명) 권사는 2년 전 중학생 딸에게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윤 권사는 "마치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윤 권사의 딸은 사춘기 전까지만 해도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윤 권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딸은 결국 신앙생활에서 이탈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24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추다니엘(59)씨는 "요즘 학생들이 신앙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학업, 대학 진학 문제에 관심이 크다"고 했다. 추씨는 "많은 학생이 학원 수업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을 선택한다"며 "게다가 학부모들이 '대학 입학 후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지점"이라고 전했다.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김지영(가명·64)씨는 최근 교회학교 교재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학교가 축소되고 다음세대가 줄어들면서 공과 교재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30-40%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다음세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부재가 꼽힌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 청소년의 55%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한다'고 응답했지만 '자주 한다'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자주 한다'의 응답자인 12%만이 실제로 부모와 의미 있는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년 가까이 어린이 부흥회인 '어린이 은혜 캠프' 사역을 진행하는 다음세대부흥본부장 박연훈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형교회를 제외한 중·소형교회의 교회학교 출석률은 사실상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프로그램을 돌린 게 거품 현상이었던 것”이라며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사춘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세대의 신앙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사춘기 이전 입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신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다.

사사기 2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신앙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다음세대의 신앙 전수는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질 때 가능할 것”이라며 부모의 역할을 역설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잠언 8:11)**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린도전서 1:8-9)**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명목적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던 다음세대들이 점점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보다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교회와 신앙 전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부모세대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세대를 완전한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주사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